북스

Books

과학과 정치의 사생아, 원폭 50년

원자폭탄-그 빗나간 열정의 역사 다이애나 프레스턴 지음

1945년 8월 6일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폭발하는 모습.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4톤 짜리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폭발했다. 단 한대의 비행기에서 투하된 단 하나의 폭탄으로 히로시마는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해 12월말까지의 사망자 수는 전체 히로시마 인구 35만명중 13~15만명에 달했다.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해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격찬했지만 일부는 '과학이 순결성을 상실한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영국의 역사가 다이애나 프레스턴이 쓴 '원자폭탄-그 빗나간 열정의 역사'는 두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가 1898년 방사능이라는 현상을 처음 기술 한 후 히로시마 원폭 투하까지 '원자폭탄'에 얽힌 과학사(史)를 비롯 정치·군사·국제 정세를 파헤친 책으로 2005년 LA타임스의 과학기술상 수상작이다.

원자폭탄을 50년에 걸친 과학적 창조성과 50년에 걸친 정치·군사적 소용돌이가 일궈낸 최고의 성과로 규정한 저자는 '가공할 만한 무기' 원작폭탄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자료와 히로시마 현지 취재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만만치 않은데다, 생소한 과학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의외로 책장은 쉽게 넘어간다. 라듐을 발견한 마리퀴리부터 미국 원폭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오펜하이머까지 새로운 '발견'을 갈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펼쳐지지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계 1·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자폭탄'의 발명을 둘러싼 독일과 영국, 미국의 움직임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 전개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학기술의 이용에 대해 애국심과 개인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1890년대까지만 해도 오직 '앎의 기쁨'을 누리고자 했다. 하지만 독일이 세계 최초로 감행한 독가스전과 원자폭탄 발명에 동원되면서 자신들의 발견이 다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른바 '맨하튼 프로젝트'에 따라 '리틀보이'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를 만든 미국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일상도 담겨 있다. 1944년 4월부터 하루에 1그램씩 반입되는 플루토늄 샘플, 3천여명에 이르는 상주인구의 생활모습, '사서함 1663, 산타페'라고만 허용되는 주소, 정보를 빼돌리려는 간첩들의 음모 등등.

그밖에 1945년 7월 16일 행해진 인류 최초의 핵폭발 실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일본인의 의지를 꺾어버릴 곳'인 히로시마 등을 타깃으로 정한 표적선정위원회의 모습 등도 생생하게 실려 있다.

저자는 역사에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원자핵을 규명한 어니스트 리더퍼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독일의 과학자들이 히틀러의 원폭프로그램에 더 깊이 개입했다면(맨하튼 프로젝트의 1%),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말한다. '과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물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리퀴리의 이야기는수정되어야 한다고. 과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무엇을 했고 사회와 세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40년전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의 의미에 대한 권력가들의 이해능력을 우리는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는 루돌프 펄스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뿌리와 이파리·2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을 침략한, 한국을 사랑한 72명의 일본인

'그때 그 일본인들'은 자유기고가인 다테노 아키라가 일본에서 출간했던 '한국·조선에 영향을 끼친 36명의 일본인'(2002)과 '36명의 일본인, 한국·조선에 대한 눈길(2005)' 등 두 권의 책을 묶은 것이다.

편저자는 "일본인 전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몸에 익히고 있는 조선멸시관 등의 원인을 해명하고 싶은 충동"에서 책을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책에는 요시다 쇼인·이토 히로부미·우가키 가즈시케·나카베 이쿠지로 등 한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인 뿐 아니라 야마자키 게사야·후세다쓰지·야나기 무네요시 등 국적을 초월한 인권주의자도 등장한다.

'한국에 영향을 끼친' 72명의 일본인들이 바라본 한국 이야기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가능성을 점쳐본다.

〈한길사·1만7천원〉

사람을 사랑한 이시대 '마지막 선비'

60여명이 쓴 '인간 신영복'의 삶과 사상과 작품세계

신영복 함께읽기 박경태 외 지음

한국 현대사의 희생양으로 20년 이상 옥살이를 해야했던 '인간 신영복'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발간됐다. '신영복 함께읽기'는 신영복(65·사진) 성공회대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책이다.

저자로 참여해 '신영복 예찬'에 나선 사람이 자그만치 60명이 넘는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신 교수의 세계관이 묻어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1부에서는 신 교수의 생애와 사상을 동료 교수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살폈다. 1부는 다시 삶과 사유, 글과 예술, 신영복 작품 다시 읽기, 깊이 읽기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김형찬 고려대 철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소설가 조정래,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필자로 나섰다.

이들은 신 교수가 걸어온 삶과 글 또는 행동을 통해 보여준 사상은 사람을 사랑한 언행일치 지식인의 표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 교수는 피천득, 법정 스님과 함께 우리나라 수필 문학의 세 봉우리 중 한 명이자 마지막 선비'(조정래), '비판적 지성의 구심'(한홍구), '사람을 거울로 삼는 구도자이자 민중에 뿌리 내린 나무'(강준만) 등으로 다시 읽혀졌다.

2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신 교수와 사적인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의 '헌사'다. 신 교수의 대학 스승이었던 이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초·중·고교 동창, 감옥 동료와 교도대원, 육사 교수 시절 제자 등 40여명의 지인들이 '인간 신영복'을 회고한다.

신 교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해 있던 '은린(銀鱗)'(고교 시절 그룹), '경우회'(서울대 상대 경제학 모임), '문우회'(시서화 대학 동아리), '청구회'(육사 교수 시절 만난 어린이들과의 모임), '말금회'(출소 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지인들 모임), '전쪼회'(세실극장 주변인들 모임), '더불어숲학교'(문화공동체) 등의 모임들은 그의 사람 사랑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신 교수의 저서가 출판되는 과정과 출소 후 성공회대 교수로 자리를 잡기까지 노력했던 주위 사람들의 사연 등도 '신 교수 추종자들'의 글을 통해 펼쳐진다. 〈한길사·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럽에 빠지는 즐거운 유혹1, 2=일본 작가 베니야마가 유럽의 신화와 미술, 건축, 성경을 토대로 유럽의 역사와 문화 기행을 서술했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가진 신화와 성경으로 토대로 여행에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전달한다. 〈스타북스·각권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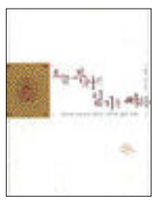
▲누가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는가=북유럽 최고의 추리 소설에 수여하는 글래스 키 상 등을 휩쓸며 '범죄 소설의 여왕'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르웨이 작가 카린 포숨의 97년작이다. 치밀한 심리묘사가 압권으로 한 여름 노르웨이 숲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들녘·1만원〉

▲슈거 블루스='뉴욕 포스트' 기자시절 예리한 기사로 이름을 날렸던 윌리엄 더프티가 분유, 커피, 빵, 담배 등 현대인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설탕의 해악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쳤다. 미국에서 160만 부 이상 팔리며 화제를 모았다. 〈북라인·1만1천원〉

▲수의 마법사=독일의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 교수가 추리 소설 형식으로 수학과 암호의 세계를 흥미진진하게 전개한다. 어린 학생들이 흥미있어 하는 '해킹'을 주제로 크리스티앙이라는 어린 학생이 암호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대교베텔스만·9천원〉

▲AD33=예수를 믿는 인구는 2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예수의 삶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분분하다. 작가 콜린 듀리에즈는 예수의 부활과 죽음이 있었던 서기 33년에서 그 비밀을 추적할 수 있다고 보고 유적 답사와 역사서 연구를 통해 예수의 시대를 전달한다. 〈이른 아침 1만8천원〉

▲세상에 못 갈 곳은 없다=17세기 후반~19세기까지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시대에 앞장섰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바바라 호지슨은 다른 나라의 사회상, 정치적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시각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북하우스·1만1천800원〉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이 봉은사 법회에서 행해졌던 대표 선지식인이 전하는 말 가운데 선지식과 생활, 기도에 관한 법문만을 골라 엮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 등 설법 서른 세 편이 쉽게 풀이됐다. 〈은행나무·1만4천원〉

▲이휘소-못다 핀 천재 물리학자=미국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말했던 이휘소 박사의 일대기를 그렸다. 저자 이용포가 국내에 생존해 있는 이 박사의 친동생 부부와의 인터뷰, 친필 편지 100여 통을 토대로 잘못 알려졌던 이 박사의 업적을 재조명한다. 〈작은씨앗·9천500원〉

▲굴러라 유럽=자유로운 유럽 자동차여행을 위한 가이드 북. 53일간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난 14개국 361개 도시를 소개하고 400여개가 넘는 캠핑장 및 자동차 호텔 약도도 수록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유럽 각 나라의 운전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실었다. 〈소울키친·2만2천원〉